

## 이녕(李寧)과 고려의 회화

안 휘 준\*

차 례

- I. 머리말
- II.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본 이녕
- III. 이녕과 고려의 회화
- IV. 맺음말

### I. 머리말

이녕(李寧)은 『고려사』의 「열전」에 올라 있는 유일한 화원이다. 이는 그가 화가로서의 능력이나 영향력에서 고려시대 최고의 인물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녕은 『삼국사기』의 「열전」에 유일하게 게재되어 있는 신라의 술거(率居)와 비중 면에서 비견될만한 화가였음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또한 이녕은 조선왕조 초기 화단의 최고 거장이었던 안견(安堅)에 앞서 순수한 감상화의 수준을 한껏 높여 놓은 인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이녕은 술거로 상징되는 고대회화와 안견으로 대표되는 근세회화를 이어주는 중세회화의 표상적(表象的)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회화사에서 족히 삼대가로 불려도 좋을 이들 중에서 오직 안견만이 작품을 남기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연구되었을 뿐, 술거와 이녕은 전해지는 작품도 전무하고 기록조차 형성하여 단편적으로 소개되는 것 이외에 제대로 조명된 바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녕에 관하여 『고려사』의 기록이나 좀 더 분석해 보고 또 고려시대의 회화와 연관지어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작품사료가 없고 문헌사료마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이 어떤 뚜렷한 열매를 맺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녕과 그가 살았던 시대의 회화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에는 일조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안견으로 대표되는 조선초기의 회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II.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본 이녕

이녕에 관한 종합적인 기록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고려사』, 『열전』, 방기편(方技篇)에 실려 있다. 먼저 이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sup>

이녕은 전주사람(全州人)으로 젊어서 그림으로 이름이 알려졌다. 인종조(재위 1122~1146)에 추밀사 이자덕(李資德)을 따라 송나라에 들어갔는데 휘종이 한림대조인 왕가훈(王可訓), 진덕지(陳德之), 전종인(田宗仁), 조수종(趙守宗) 등에게 명하여 이녕을 좇아 그림을 배우게 하였다. 또한 이녕에게 본국(고려)의 예성강도를 그리게 했는데 곧 바치니 휘종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근래에 고려의 화공이 사신을 따라온 자가 많았었다. (그러나) 오직 이녕만이 묘수이다”라고 하고, 술과 음식과 각종 비단을 하사하였다. 이녕은 젊어서 내전(內殿)의 고관이었던 이준이(李俊異)를 스승으로 삼았는데 이준이는 후진을 시샘하여 그림에 능한 자가 있어도 추천하는 일이 적었다. 인종이 이준이를 불러 이녕이 그린 산수화를 보였더니 이준이가 깜짝 놀라며 “이 그림이 다른 나라에 있다면 신은 반드시 천금으로 살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송나라 상인이 그림을 바쳤는데 인종은 이를 중국의 기이한 작품이라고 여겨 기뻐하였다. 이녕을 불러 자랑하며 보이니 이녕이 “이 작품은 신이 그린 것이옵니다”라고 하였다. 인종이 믿지 않으므로 이녕이 그림을 취하여 표구된 뒷면을 절개하니 과연 (이녕의) 성명이 있었다. 왕이 더욱 (그를) 총애하였다. 의종 때(재위 1146~1170)에 이르러 내각의 회사(회화에 관한 일)를 모두 주관하였다. 아들 이광필 역시 그림으로서 명종(재위 1170~1197)으로부터 아낌을 받았다. 왕이 문신들에게 명하여 소상팔경에 관하여 시를 짓게 하고 이에 (이광필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왕은 도화에 정통하고 더욱 산수화를 잘 그렸다. 이광필·고유방 등과 더불어 물상들을 그리며 종일토록 권태로움을 잊었다. 군사(國事)를 게을리하고 신하를 가까이 할 생각을 더하지 않았으며 주청되는 일들은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을 바랬다. 이광필의 아들을 서정(西征)했을 때의 공으로 대정의 벼슬에 보하고자 했는데 정언인 최기후가 책잡아 말하기를 “이 아들이 나이 겨우 20세이므로 서정시에는 갓 10세였다. 열 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종군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며 고집을 부리고 서명하지 않았다. 왕이 최기후를 불러 꾸짖어 말하기를 “너 혼자서만 이광필이 우리 나라를 영광되게 함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광필이 없으면 삼한의 도화는 거의 끊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최기후가 이에 서명하였다.

1) 『高麗史』 권 122, 「列傳」 35, 方技篇에 보이는 이녕에 관한 기록을 적어 보면 아래와 같다. “李寧 全州人 少以畫知名 仁宗朝(1122~1146) 隨樞密使李資德入宋 徽宗命翰林待詔王可訓·陳德之·田宗仁·趙守宗等從寧學畫 且勅寧畫本國禮成江圖 既進 徽從嗟賞曰 比來高麗畫工隨使至者多矣 唯寧爲妙手 賜酒食錦綺綾絹 寧少師內殿崇班李俊異 俊異妬後進 有能畫者少進許 仁宗召俊異 示寧所畫山水 俊異愕然曰 此畫如在異國 臣必以千金購之 又宋商獻圖畫 仁宗以爲中華奇品悅之 召寧誇示 寧曰 是臣筆也 仁宗不信 寧取圖拆粧背 果有姓名 王益愛幸及毅宗時(1146~1170) 內閣繪事悉主之 子光弼亦以畫見寵於明宗(1170~1197) 王命文臣賦瀟湘八景 仍寫爲圖 王精於圖畫 尤工山水 與光弼·高惟訪等 繪畫物像終日忘倦 軍國事慢 不加意近臣 希旨凡奏事以簡爲尚 光弼子以西征功補隊正 正言崔基厚議曰 此子年甫二十 在西征方十歲矣 豈有十歲童子能從軍者 堅執不署 王召基厚責曰 爾獨不念光弼榮吾國耶 微光弼三韓圖畫殆絕矣 基厚乃署之.”

이 기록을 통하여 여러 가지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우선 기록의 내용을 원문에 따라 순서대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 ① 이닝은 본관이 전주였다.
- ② 젊어서부터 그림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 ③ 1124년에 추밀원부사 이자덕을 따라 북송에 들어가 휘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왕가훈, 진덕지, 전종인, 조수종 등 그곳의 대표적 화원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다.
- ④ 휘종의 요청으로 <예성강도>를 그렸다.
- ⑤ 젊은 시절에 이준이에게서 배웠다.
- ⑥ 이닝의 그림이 북송에 전해졌다가 송나라 상인에 의해 다시 고려에 건너와 인종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그림으로 오인되었다.
- ⑦ 이닝의 서명이 그림의 배접된 뒷면에 되어 있었다.
- ⑧ 인종조에 이어 의종조에 이르러서는 내각의 회화관계 일들을 모두 주관하였다.
- ⑨ 이닝에 이어 그의 아들인 이광필이 명종의 아낌을 받았다.
- ⑩ 명종의 명에 따라 이광필이 <소상팔경도>를 그렸다.
- ⑪ 명종은 회화에 정통했고 산수화를 잘 그렸다.
- ⑫ 명종은 이광필·고유방 등과 어울려 늘 그림을 그리고 국사를 소홀히 하였다.
- ⑬ 명종은 회화가 국가를 영광되게 한다고 믿었고 이광필이 아니면 고려의 회화가 끊어질 수도 있다고 믿었다.

이상의 내용은 이닝과 이광필 부자에 관한 것들과 고려시대 회화에 관한 것들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것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묶어서 재정리하는 것이 이닝과 그 시대의 고려회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이닝은 본관이 전주, 즉 전주 이씨로서 이준이의 제자였으며 젊어서부터 그림으로 이름을 날렸고 1124년에는 추밀사 이자덕을 따라 북송에 들어가 휘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휘종의 지시에 따라 왕가훈을 위시한 중국의 유명한 궁중 화가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음이 확인된다. 또한 휘종의 요청을 받아 고려의 수도 개성(송도)을 잇는 예성강의 모습을 담은 <예성강도>를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닝은 인종조에 이어 의종조에 걸쳐 활동하면서 궁중의 회화에 관한 모든 일을 주관하였고 이러한 그의 영향력은 명종조에 이르러서는 명종의 총애를 받은 그의 아들 이광필에 의해 계승되었음이 밝혀진다. 이로써 보면 12세기 고려의 회화는 이닝과 이광필 부자에 의해 좌우

되었음이 분명해진다. 이는 곧 12세기와 그 전후한 시기의 고려회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녕 부자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 Ⅲ. 이녕과 고려의 회화

『고려사』의 이녕에 관한 기록은 12세기 당시의 고려회화에 관하여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주거나 짐작케 한다.

첫째로, 고려의 회화는 역대 왕들의 애호와 지원 하에 발달하였음이 주목된다. 이녕을 후원한 인종과 의종, 이광필을 총애한 명종은 그 좋은 예이다. 특히 명종의 경우 스스로 산수화를 잘 그렸을 뿐만 아니라 이광필 및 고유방 등과 어울려 온종일 회화를 감상하면서 국사를 등한히 할 정도였고 이광필 같은 뛰어난 화가와 회화가 국가를 영화롭게 한다고까지 믿었다. 이는 고려의 역대 왕들이 얼마나 회화와 뛰어난 화가들을 중시했는지를 잘 말해 준다고 하겠다. 이 점은 인종, 의종, 명종 이외에도 서화에 능했던 헌종(獻宗, 재위 1094~1095), 원의 수도 연경(燕京)에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을 불러들여 조맹부(趙孟頫) 등 당시 중국의 여러 학자들이나 화가들과 교류케 했던 충선왕(忠宣王, 재위 1298, 1308~1313), 서화에 능하고 자화상까지 그렸던 공민왕(恭愍王, 재위 1351~1374) 등의 사례들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고려 왕들의 회화 애호 경향은 이녕과 이광필이 군림했던 12세기에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생겨서 말기까지 이어졌던 것임이 확인된다.<sup>2)</sup> 또한 이러한 경향은 조선왕조로 이어져 세종, 성종, 연산군, 중종, 숙종, 영조, 정조 등 서화를 사랑하고 발전시킨 왕들을 배출하였음이 주목된다. 이와 같은 풍조가 회화의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되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로, 이녕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미 그림을 전문으로 그리는 직업화가로서의 화원(畫員)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고려시대에는 이미 태조(太祖) 때부터 어진(御眞)과 공신상(功臣像)이 활발하게 제작되었음을 볼 때 그 제작을 담당하는 화원들이 있었을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sup>3)</sup> 그리고 이러한 화원들이 속하는 조정 또는 궁정 기구로서의 도화원(圖畫院)이 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설립시기와 구체적 조직은 알 수 없지만 고려시대에 도화원이 존재했었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기원이 이녕이 활약한 12세기 이전으로 올라갈 여지가 큼을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이미 삼국시대 말 신라가 회사(繪事)를 관장하는 채

2) 고려시대 회화의 전반적인 경향에 관해서는, 安輝濬, 『韓國繪畫史』(一志社, 1980), pp. 51~89 및 安輝濬 著, 藤本幸夫·吉田宏志 譯, 『韓國繪畫史』(東京: 吉川弘文館, 1987), pp. 29~55; 洪善杓, 「고려시대의 미술: 일반 회화」, 『韓國美術史』(大韓民國藝術院, 1984), pp. 271~287 참조.

3) 고려시대의 초상화에 관해서는 趙善美, 『韓國의 肖像畫』(悅話堂, 1983), pp. 63~107 참조.

전(彩典)이라는 기관을 세웠고 통일신라 시대에 그것이 계승되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그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sup>4)</sup> 조선시대에 체계화된 화원과 도화원 제도가 국초부터 확립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시대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던 데에 그 요인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sup>5)</sup>

셋째로, 고려의 회화는 이녕과 이광필 부자와 같은 화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왕공귀족들 사이에서도 여기화(餘技畵)로서 널리 그려졌음이 눈길을 끈다. 서화에 능했던 헌종, 산수화를 잘 그린 명종, 자화상까지 그렸던 공민왕 등은 이의 단적인 예들이다. 고려의 회화는 이처럼 왕공귀족들과 직업화가였던 화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이다. 이밖에 선승(禪僧) 중에도 여기화가로 활동한 인물들이 적지 않았다. 즉 고려시대에는 왕공귀족들, 화원들, 선승화가들 등 세 계층의 화가들이 활동하며 회화를 발전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일부가 이녕에 관한 기록을 통하여 밝혀진다.

넷째로, 경치를 상상해서 그리는 흥중산수화 혹은 이념산수화와 실재하는 명산승경을 그리는 실경산수화가 병존했음이 밝혀진다. 명종이 이광필을 시켜 소상팔경도를 그리게 한 것은 전자의 단적인 예이고,<sup>6)</sup> 이녕이 북송에 가서 휘종의 요청에 따라 <예성강도>를 그린 것은 후자의 예에 해당된다. 관념산수화라고도 불리는 이념산수화 혹은 흥중산수화의 존재는 너무나 뚜렷하여 상론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이 남아있지 않아 그 면모를 알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11세기에 제작된 <어제비장전(御製秘藏詮)판화>는 당시 산수화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참고가 된다고 본다.<sup>7)</sup> 송대의 거비파적(巨碑派的) 경향이 뚜렷한데 이녕 일가의 산수화도 대체로 이러한 경향을 띠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어쨌든 이녕과 이광필 부자는 감상화로서의 흥중산수화의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조선초기로 이어져 감상화로서의 흥중산수화의 최대 거장인 안견을 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이미 고려시대에 실경산수화가 자리를 잡았음이 주의를 요한다. 이녕이 비록 휘종의 요청에 따라 <예성강도>를 그리기는 했지만 이는 고려에 이미 실경산수화의 전통이 확립되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녕이 <예성강도> 이외에도 <천수사남문도(天壽寺南門圖)>를 그렸던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인로의 『파한집(破閑集)』과 김안로의 『용천담석기(龍泉談寂記)』는 이녕이 절경이었던 천수사의 남문을 그렸던 사실과 함께 바로 이

4) 안취준, 『한국회화사』, p. 39 및 藤本幸夫·吉田宏志 譯, 『韓國繪畫史』, p. 17 참조.

5) 고려시대 도화원의 전거는 『고려사』 권 77, 志 권 31, 百官 2, 「西京留守」條 참조.

6) 한국에서의 소상팔경도의 수용과 변천에 관해서는 安輝濬, 「韓國의 瀟湘八景圖」, 『韓國繪畫의 傳統』(文藝出版社, 1988), pp. 162~249 참조.

7) 李成美, 「高麗初彫 大藏經의 御製秘藏詮版畵 —高麗初期 山水畵의 一研究」, 『考古美術』 169·170(1986. 6), pp. 14~70 참조.

<천수사남문도>가 『고려사』의 기록에 보이는 송나라 상인이 고려의 왕에게 바쳤던 그림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인로는 그것이 예종때인 것으로, 김안로는 그러한 명화가 어떻게 안평대군의 화기(畵記)속에 보이지 않는지 의문스러워 한 점이 차이로 하겠다.<sup>8)</sup> 어쨌든 이녕이 <예성강도>와 <천수사남문도>를 그렸던 사실은 그가 흥중산수화와 함께 실경산수화에서도 크게 기여했음을 말해준다.

이밖에도 전공지(田拱之, ?~1014)가 현재의 제주도인 탐라(耽羅)에서 화산이 폭발하자 그려 바쳤던 탐라 지형도인 <서산도(瑞山圖)>, 예종(재위 1106~1122) 때 개성 양화루(陽和樓)의 모습을 비단에 담아 그린 <양화루도(陽和樓圖)>, 이지지(李之抵, 1092~1145)가 벽에 걸어 놓고 감상했다는 <진양산수도(晉陽山水圖)>, 그 밖의 <오대산도(五臺山圖)>, <영월형승도(寧越形勝圖)>, <박연폭포도(朴淵瀑布圖)>, <청학동도(靑鶴洞圖)>, 북송에 과연되는 사절단이 화원을 데리고 와서 중국의 산천을 마구 그려가곤 한다고 소식(蘇軾, 1036~1101)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 그리고 12세기 이후에 <금강산도(金剛山圖)> 등이 그려졌던 사실 등은 고려시대에 일찍부터 실경산수화가 자리를 잡아 후대까지 계승되었음을 밝혀준다.<sup>9)</sup> 고려시대 실경산수화의 일면은 후기의 노영(魯英)이 1307년에 그린 <지장보살도(地藏菩薩圖)>의 배경에 보이는 금강산의 그림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sup>10)</sup>

다섯째로 12세기의 회화는 북송대의 화풍과 밀접했음이 짐작된다. 이녕이 그린 산수화를 그의 스승인 이준이가 알아보지 못한 점이나 인종이 송나라 상인에게서 받은 이녕의 그림(<천수사남문도>)을 중국의 기품(奇品)이라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이녕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점 등은 이를 잘 말해 준다. 이 그림이 과연 이인로의 기록대로 <천수사남문도>였다면 당시의 실경산수화도 중국적 화풍을 짙게 띠고 있었다고 풀이된다. 이녕 부자의 작품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양상은 밝힐 수 없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어제비장전 판화>의 존재, 1074년에 고려 문종(文宗)이 김양감(金良鑑)을 사신으로 보내어 중국의 그림들을 열심히 사들이고 1076년에는 중국 상국사(相國寺)의 벽화를 모사해 오게 하여 개성의 흥왕사(興王寺)의 벽에 옮겨 그렸던 사실, 수많은 중국의 그림들이 고려 왕실에 전해져 보관되었던 사실 등은 고려와 북송 화단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 주기에 족하다.<sup>11)</sup> 중국 상국사의 벽화 제작

8) 원문은 진홍섭, 『韓國美術史資料集成(1)』(一志社, 1987), p. 284 참조.

9) 洪善杓, 「東國輿地勝覽의 회화관계 기록」, 『講座美術史』 2(1989. 12), pp. 23~25; 安輝濬, 「高麗 및 朝鮮王朝初期의 對中 繪畫交涉」, 『亞細亞學報』 13(1979. 11), pp. 145~146 및 「高麗及び李朝初期における中國畫の流入」, 『大和文華』 62(1977. 7), p. 3, 12의 주 9; 朴銀順, 『金剛山圖연구』(一志社, 1997), pp. 65~66 참조.

10) 文明大, 「魯英筆 阿彌陀九尊圖 뒷면 佛畫의 再檢討 一高麗 太祖의 金剛山拜帖 曇無竭(法起)菩薩 禮拜圖一」, 『古文化』 18(1980. 6), pp. 2~12 참조.

11) 본고 주 9, 안휘준의 논문들 참조.

에는 당시의 유명한 화가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므로 그들의 다양한 화풍들이 고스란히 고려에 전해졌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1070년대 북송의 대표적 화원이었던 곽희(郭熙)의 작품 2점이 고려 왕실에 선물로 주어졌던 사실과 곽희화풍이 고려 후기의 불교회화에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초기 최고의 산수화가었던 안견화풍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이다.<sup>12)</sup>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녕과 이광필은 곽희화풍을 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어진다.

여섯째로, 고려와 북송 사이에 회화를 비롯한 문화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나라 상인들의 역할이 지대했음도 유의된다. 이녕의 작품을 송나라 상인이 인종에게 바쳤다는 기록은 그 일면을 엿보게 한다. 또한 고려가 북송에 보내는 사절단에는 화원을 포함시켰음이 이녕의 예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앞에 언급한 소식 혹은 소동파(蘇東坡)의 황제에 대한 진언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해 준다.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화적(畫跡)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중국 화론의 전래이다. 소식과 문동(文同) 일파의 시화일률론(詩畫一律論), 흉중성죽론(胸中成竹論), 신여죽화론(身與竹化論), 심수상응론(心手相應論) 등이 고려에 전래되어 송소열(崇蘇熱)과 함께 널리 퍼지고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13)</sup> 소식이 이녕보다는 연대가 앞서고 당시 고려와 북송간의 밀접한 관계로 보아 이녕도 소식 일파의 화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식 일파의 영향은 고려후기는 물론 조선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일곱째로, 고려의 회화가 적지 않게 북송에 전해졌음이 주목된다. 이녕의 작품이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송나라 상인에 의해 고려로 되돌아와 인종에게 바쳐졌던 사실은 그 좋은 증거이다. 이 점은 북송의 곽약허(郭若墟)가 지은 『도화견문지(圖畫見聞誌)』의 고려국조의 기록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진다.

여덟째로, 고려 왕실에 회화 소장품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의종이 이녕에게 왕실의 회사(繪事)를 모두 주관하게 했던 사실 등은 그 분명한 증거들이다. 사실상 당시 고려의 궁내에는 중국으로부터 받은 서화를 천장각(天章閣), 청연각(淸讌閣), 보문각(普門閣)에 나누어 보관하였다.<sup>14)</sup> 이러한 사실들은 고려 왕실에 회화 컬렉션이 있었음을 명백하게 밝혀준다.

아홉째로, 12세기 고려에서는 화가가 자신의 그림 앞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그림의 뒷면에 숨겨서 했었음이 주목된다. 송나라 상인이 바친 이녕의 그림을 인종이 중국그림으로 오인하므로 이녕이 자신의 작품임을 주장했으나 믿지 않다가 배접을 찢으니 과연 그의 성명이 있었고 그후

12) 안휘준, 『韓國繪畫의 傳統』(문예출판사, 1988), p. 115 참조.

13) 洪善杓, 「高麗時代의 繪畫理論」, 『考古美術』 187(1990. 9), pp. 3~23 참조.

14) 본고 주 9, 안휘준의 논문들 참조.

인증이 그를 더욱 아끼게 되었다는 이녕에 관한 이 『고려사』의 기록은 그 분명한 사례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고려사』의 이녕에 관한 기록은 이녕과 이광필 부자에 관해서는 물론 당시 고려의 회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더없이 소중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맺음 말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려의 회화는 이녕의 시대를 전후하여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즉 그의 등장을 계기로 하여 삼국시대 이래 주를 이루었던 실용적 목적의 회화가 순수한 감상을 위한 회화로 그 중심이 확고하게 바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흥중산수화 혹은 이념산수화와 더불어 한국에 실재하는 명산승경을 화폭에 담은 실경산수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12세기에 이루어진 이러한 변화는 고려 후대는 물론 조선왕조 초기로 이어져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녕의 출현은 한국회화사상 지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 The Academy Painter Yi Nyŏng and Painting of Koryŏ Dynasty

Ahn, Hwi-joon

Yi Nyŏng 李寧 is the only academy painter of Koryŏ Dynasty whose biography was recorded in *Koryŏ-sa* (History of Koryŏ Dynasty). Active during the reigns of King Injong (1122-1146) and King Ŭijong (1146-1170), he served the court as the most representative and influential academy painter.

Yi Nyŏng also travelled to Song China in 1124 as a member of Koryŏ diplomatic mission headed by Yi Cha-dŏk, where he was highly evaluated by Emperor Huizong.

His service and contribution were followed by his son Yi Kwang-p'il, who also earned absolute recognition from King Myŏngjong (r. 1170-1197). Therefore, it is undeniable that Korean painting of the 12th century was virtually led by Yi Nyŏng and his son Yi Kwang-p'il.

The record on Yi Nyŏng and Yi Kwang-p'il in *Koryŏ-sa*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various aspects of Koryŏ painting of the 12th century. Thanks to this record, the following facts are clarified:

- 1) Koryŏ painting developed remarkably owing to generous patronage of kings.
- 2) The system of academy painters was firmly established in Koryŏ Dynasty.
- 3) Painting was executed not only by academy painters but also by literati or amateur painters.
- 4) Real-view landscape painting began to be depicted along with conceptual landscape as early as the 12th century at the latest.
- 5) Koryŏ painting of the 12th century had close stylistic relationship with Chinese painting of Northern-Song.
- 6) A large number of Chinese paintings were imported to Koryŏ and quite a number of Koryŏ paintings were also taken to Northern-Song China.

- 7) It is evident that there was royal collection of paintings at Koryō court.
- 8) It was probably customary that academy painters put their signature and seal at the back of painting to conceal them before being mounted.